

25091 이준석 산문

제재: 우리들

I

1

연락을 받고 그녀는 다음날 일을 나가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친구가 사망했다는 부고인데 그녀와 비슷했던 친구의 나이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아마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믿었다. 실감은 나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슬프기는 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울었다. 그녀의 기억은 자신이 운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언급할 정도로 최근의 일은 아니었다) 우는 중에 그 사실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보통의 반응이리라, 그녀는 생각했다.

2

‘언제나 그렇듯 이곳은 완벽한 장소이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 문장을 말해보아도 전혀 질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언제나 사실인 문장은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이 문장만큼은 전혀 아니었다. 역시 세상에 진리만큼 안정적인 대상이 없음을 되새긴다.

다음날 예정대로, 아니 어쩌면 갑작스럽게 일을 가지 않고 장례식을 갔다. 그곳에서 한울이의 가족들과 만났다. 그리고 드문드문 아는 그의 친구들과 같이 먹었다. 모든 것이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무엇 하나 다른 점이 없다는 그것, 그게 바로 평소와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를 것이지만 한울이는 이렇게 사라져갈 친구가 아니다. 그저 늘어나는 청년 사망자 수 통계에 기여하고서 몇몇의 기억을 빼고 아무데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실존하는 무언가에 깃들어 영원히 존속할 영혼이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자신임에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식장에서 나와 가는 길에서 주변 모든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다. 친구의 장례식 이후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잘 넘겨 버릴 법한 데도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기로 평소처럼 결정했다. 최한울의 장례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여전히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은 세상이어도. 진정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녀의 직감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의 직감에 따라 행동한다는 원칙을 가진 그녀의 행동도 그러했다. ‘진짜야.’라고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녀는 태양의 빛이 더 뜨거워진 변화를 눈치챘다. 하루의 흐름으로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없음은 직감도 아닌 상식이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지금 그녀가 있는 세계는 그녀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확실히 다르고 또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울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할 의무를 짊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느 때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을 알 수도 없이 바꿔버릴 거대한 그것이 나타나기를.

세상이 달라져 버렸다는 증거는 이것뿐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한다. 장례식장 안에서의 일들을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이것이 한울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분명 한울이는 나에게 이따금씩 자신이 죽어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 사람은 한울이의 죽음을 알고도 일을 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울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어떤

정보를 받아드린 감정이겠지. 마치 신문 구석에서 ‘바이러스 5차 변이, 남아프리카 동북부를 중심으로 창궐’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덮듯이. 둘 다 사람이 죽는 일이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나가자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을 직감에 맡겼다.

‘그래, 그 존재가 있어. 그래서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녀는 자신에게 말한 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심해 보았다. 그러나 그 존재를 실제로 마주하지 않고는 아무 실마리도 찾을 수 없을 듯했다. 이건 직감도 아닌 불가능함이었다. 헛빛만이 이 변화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한울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 통제하에 놓아야 한다. 이 끝없는 변화의 양상을 손아귀에 잡아두지 않으면 무언가를 유실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골목에 한 남자가 누운 듯 앉아있었다. 심하게 말라 피부와 뼈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게 했다. 피부는 뾰족하게 돌출된 작은 손뼈와 팔꿈치뼈에 걸린 채로 현수막처럼 팔에 널렸다. 직선으로 뻗은 현수막의 윗부분 밧줄은 기묘한 탄력을 유지했다. 다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마 몸도 그렇겠지. 입을 내밀어 담배를 열심히 물고 있었다. 팔과 얼굴 말고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나는 헛구역질을 애써 참으며 길을 나섰다.

한밤을 더 보내고 일하러 갔다. 4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도착하여 평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조금 기뻤다. 버스 안은 평소처럼 비어 있고 잘못 배합된 방향제와 세제의 냄새가 났다. 그래도 꽤 빠르게 익숙해지는 편이었다. 한 번 큰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고 다시 들이쉬었다. 간헐적인 흔들림 사이사이 한울이를 생각했다. 그는 2개월 하고도 10일 전, 헤어지고 나서 만난 적이 없었다. 그 헤어짐은 이전과 완벽하게 똑같았고 이후 연락이 없다는 것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 아마도 실마리는 그때의 한울이에게 없는 듯했다.

출근한 학원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아침이라 어제와 같은 달라진 헛빛을 제외하면. 카운터 직원의 인사는 조금은 작게 받아친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자 보이는 내 수업의 학생에게는 언제나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첫 수업에서 한 남학생은 어딘가가 불편해 보이더니 내 풀이에 대하여 질문한다. 삼차함수의 그래프에 접선을 여러 번 그려야 하는 문제였는데 중간에 분

필이 부러졌다. 그래서 그 이후 그리는 접선들은 이전의 것보다 더 굵어졌다. 그러나 더 반듯하게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다. 그동안 오후 수업과 그다음 수업을 준비하면 밥을 먹을 시간이 된다. 오늘은 특별히 학원 밖에서 먹어볼까. 라고 이미 이를 가기 전부터 결심한 듯했다. 한울이는 나에게 도망치고 싶다고 말하고는 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크니 이를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고, 원하는 만남에서 오는 행복은 한순간이지만 원치 않는 만남에서 오는 고통은 길다고. 그러한 도망이 단순히 물리적인 대면으로부터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대상들에 대해 한울이는 기본적으로 마땅치 않아 했다. 만약 한울이가 내 수업의 학생이었다면, 그 남학생이었다면, 질문을 할 때 무엇이 불편했을까. 수업을 마치고 보아야만 하는 시험은 어땠을까. 마지막 날에 이 말을 했었던가.

그녀는 자신에게 수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았다. 수학 강사를 직업으로 삼으면서도 이러한 생각이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대학교 2학년이 지나갈 때까지 열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때 한울이를 처음 만났지. 라고 깨달으며 다시 자신의 기억 속으로 잠수하였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아마 점심시간 안에 끝날 탐사는 아닌 듯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동안에는 이 헤엄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다시 한번 언제나와 같음을 느낀다. 창밖에는 잔디밭 마당과 울타리, 작은 나무와 햇빛이 보였다. 햇볕이 저번보다 조금 더 약해진 것 같기는 하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변화들 중 마지막일 것이라 말해본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논의 공기가 나를 맞아 준다. 출렁이는 벼들 사이로 바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 논을 하늘에 떠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 모습을 여기서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자.

밖으로 나와 마당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과일 가게가 보인다. 과일은 어제 사 왔는데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다 먹어 치워 버린 기억이 났다. 들어서자 보이는 주인 어르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중하게 인

사하고 부모님 심부름을 온 듯한 아이에게는 살갑게 인사해 준다. 아이는 빨간 장바구니에 과일을 꾹꾹 담아 인사를 받아주고 집으로 행했다. 다섯 가족이니 저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생각한다. 아이 오른쪽에서 신나게 흔들거리는 빨간 장바구니의 잔상이 눈에 남았다. 장바구니를 하나 장만해 볼까. 라 잠시 고민한다. 그리고는 산 과일을 종이봉투에 담는다. 과일의 흔들림이 종이봉투를 툭툭 친다. 종이로 된 벼들 사이로 새어 나오는 바람 소리 같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바나나 하나와 사과 두 개. 집 의자에 앉아 바나나의 껍질을 두 번 벗겼을 때

‘언제나 그렇듯 이곳은 완벽한 장소이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 문장을 말해보아도 전혀 질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5

오후 수업은 그저 그렇게 마쳤다. 분필이 의도치 않게 부러지는 일도, 어떤 학생이 불편해하다가 질문하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기 전에 오후 수업을 들었던 학생과의 상담이 있다. 꽤 오랜만에 하는 상담이라 긴장해 갑자기 한울이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른 학생들이 방을 나서자 그 학생은 필통과 교재를 정리해 책상 위에 쌓아두고 나에게 왔다. 바로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책상에 의자를 끌고 와 마주 보고 앉았다. 이 여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13명이 되는 반에서 시험 점수로 항상 1, 2등을 유지한다. 그리고 2등이 된 날에는 어딘가 불편하고 애써 이를 들어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아마 자신은 이 가림이 학생들에게는 썩 잘 통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리라.

그녀는 시험에서 한 두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계산 실수로 틀렸다. 그리고 그 한 두 문제까지 맞추는 날, 그녀는 29점이나 28점을 받았다. 30점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래도 1등을 일상적으로 받아내기에는 충분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그녀에게 더 어려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반으로 옮기라 권유할 것이다.

“일단은... 하은이가 평균 점수가 25.7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번 달, 9월 달만 보면은 5번 시험 동안 27.2, 이렇게 조금 높거든.”

“네”

“사실 이 시험이 20에서 22 사이, 그렇게 맞추어서 점수가 나오도록 낸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반 전체 평균도 그 정도 나오고. 그런데 이 시험이 하은이한테는 조금 쉬운 거 같다, 그죠? 어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쉬운 문제들 빠르게 풀고 뒤쪽에 좀 오래 걸리는 거 집중해서 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시험 질문 풀이해 줄 때도 29번, 30번 이런 거 아니면은 계속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반을 올리는 게 하은이한테 좋을 거 같아. 수업에서 말한 거처럼 하은이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니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가야 한다 이거지.”

하은이는 수긍하는 듯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원래 고려하고 있던 경우의 수 중 하나를 들은 것뿐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은 감정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척을 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나를 속이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조병훈 선생님 수업 중에서 여기보다 한 학기 빠른 게 있거든. 거기도 있고 또 이연아 선생님은 한 학기 반 빠른 게 있고. 선생님은 아마 조병훈 선생님 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어때?”

하은이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그녀는 학생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는 게 어떻겠냐 물었다. 그렇게 상담은 끝이 났다. 학생은 뒤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가 정리해 좋은 필통과 교재를 한번에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하은이가 교실을 완전히 나가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척을 했다. 학생을 속이고 싶었다.

한울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그 직전에 만난 것과 1달이 넘게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랜만이라 생각하고 반갑게 말했다. 그리고 만난 뒤로 한 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전에 만난 날을 생각하였다.

“어, 왔구나. 여기.”

그리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버스를 타고 중간에 내가 내렸다. 비어 있던 버스에는 나와 한울이와 어떤 한 남자가 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버스를 타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내릴 때 있었다. 한울이가 내릴 때 있었을까. 그랬을 것이다. 같이 내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더라도 내리는 동안 무언가를 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한울이를 한 달간 기다리게 했다. 그 사람이 장례식의 그 사람이던가.

저들을 빨리 떼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달려들었다. 그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이들을 말릴 또 다른 사람이 이 길목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의 행동이다. 빨간 옷을 입은 한 아이는 상대가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아 망가뜨렸다고 했다. 다른 아이는 놀이 중 빨간 옷 아이가 반칙을 해 압수한 것뿐이라 했다. 그리고 이전에 반칙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난감을 내주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빨간 옷 아이가 처음에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발뺌하다가 도중에 말을 바꾸어 신뢰할 수도 없다고 소리쳤다.

아마 반칙을 정의하고 반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 듯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사람이 두 아이밖에 없어 모두 객관적이라 할 수 없었다. 이럴 때는 ‘아저씨’에게 데려가면 된다. 일상적인 문제이고 게다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니 4급 센터로 간다. 운 좋게도 바로 눈앞에 4급 센터가 보였다. 마이크가 보이고 빨간 옷 아이가 다가가 말을 한다. 1분이 끝나자 다른 아이가 설명을 한다. 이번에는 더 빨리 끝났다. 깜빡이는 초록색 불빛이 소리를 내더니 화면에 메시지를 띠었다.

그러자 빨간 옷의 아이가 사과를 받고 놀이 규칙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와 합의를 반복해 가며 길을 나섰다. 4급이면 아이들끼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다시 한번 언제나와 같음을 느낀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짐을 침대의 벽면에 대충 세워두고 좋은 의자에 앉는다. 넓은 책상 위는 어질러져 있다고도, 정돈돼 있다고도 할 수 없었다. 평소에 책상을 깔끔하게 쓰지 않던 그녀가 어제 청소를 했기 때문이다. 책상에 빈 공간이 보였다. 그녀가 원래 노트북을 놓는 자리이다. 고개를 살짝 올리니 책들이 보였다. 소설책이 대부분이고 그중 많은 것은 일본

작가의 작품들이다. 다시 고개를 내리니 쌓여있는 종이들이 보였다. 수학 문제의 풀이가 적힌 연습장이거나 가끔씩 끄적이던 단편 소설들이리라.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 내는 데에 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설들이 뻔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전부 자신이 어딘가에서 읽은 소설의 내용을 조금 바꿔 적어놓은 것들이다. 주제, 인물과 배경의 설정, 사건의 양상 등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느낌이 전혀 없었다. 참신한 무언가를 잡았다는 영감이 들다가도 막상 쓰다 보면 개성이 사라지고 그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기분이었다. 라고 그녀는 글을 쓰는 자신에게 말하고는 했다.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잘하는 여학생이었다. 그녀를 이전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수학 올림피아드 경험을 묻고는 했다. 그녀는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선생님들은 순수한 감탄의 감정을, 학생들은 질투 섞인 경의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리고 질문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녀 입장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절차같이 느껴졌다. 착각해 줘 고맙다는 듯한 눈웃음만 기계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모르는 세에 잔뜩 거만해진 건 아닐까 하고 불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전부터 거만한 사람들을 보면 불쾌감을 참을 수 없었다.

‘언젠가는 저러다 큰 폐 보겠지’ 라 생각하고 이 기분을 애써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든 거만하다는 것은 그녀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수학교육학을 전공으로 학교에 입학한 뒤 그녀는 보통에서 조금 높은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자신이 수학에서 보통이라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한 번은 점수를 보았을 때 예상보다 너무 낮아 놀랐다. 몸 내부의 장기들이 단번에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어떤 감정으로 저장되지 못한 생소함과 ‘왜’라는 이해되지 못한 질문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그저 그런 일이 되었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녀는 믿는다. 여러 거만한 사람들처럼 경험이 부족했다.

그녀가 처음 글을 썼을 때였다. 자신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면 꽤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였다. 그리고 3달 반 만에 작성한 중편 소설을 인터넷 어딘가에 개시하였다. 그 소설을 보고 한울이가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소설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읽는 데에 시간을 할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갈수록 작

성과 동시에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한 남자는 숲을 거닌다. 그러다 그 숲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부족들과 상호작용 한다. 각 부족들은 야생성 말고도 대표되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씩 품고 있다. 한쪽은 극히 탐욕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욕에 행동이 지배당하기도 한다. 선한 성격의 부족을 배치할지 말지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그 남자의 등장으로 부족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전쟁한다. 남자는 전쟁에서 특정 상징이 되어 여러 부족을 강제로 옮겨 다니며 비이성적인 의식의 대상이 된다. 남자는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그들이 남자의 사회적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남자와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뒤였다. 그녀가 이 소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설이 담는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이 시작부터 좁혀질 수 없는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이질감에 모두가,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희망이, 압도되기를 바랐다.

다시 한번, 그녀는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느끼려 시도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공간은 아무런 차이점도 발견 할 수 없는 일상적인 하루의 끝이었다. 그러나 긴장할 때면 오던 손목 안쪽 부분의 은근한 찌릿함이 확실히 느껴졌다. 그 떨림은 신경을 타고 팔꿈치까지 이동하며 주위의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듯했다. 내적인 변화는 분명 새로운 자극의 등장을 의미했다. 직감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특이하게 직감은 진짜 세상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가 감을 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녀는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어떠한 잣대로도 가늠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막막함에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변화에만 집중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자신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거친 흙바닥을 횡단하는 사고의 수레가 툭 하고 내려앉은 듯했다. 수레 끄는 사람은 뒤를 돌아 하강한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땅을 이리 울퉁불퉁하게 변형했는지 생각했다. 힘주어 빠르게 달리는 자신의 수레까지 멈춰버릴 정도의 굴곡.

아무리 보아도 변하는 그녀 자신에게 있었다. 이 세상이 송두리째 새로 만 들어졌다는 것보다는 더 알맞은 가설이었다. 세상은 이전과 같은 형태로 있고 그녀만이 갑자기 이동한 것이다. 어떤 계기로 두 우주 사이의 공간을 넘

어왔다. 그녀는 원래 자신이 존재하던 세계와 이전과 다른 세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느꼈다. 두 우주가 존재하는 거대한 무대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번의 이동이 사라질 수 없는 어색함을 남겼다.

‘지금 여기는 내가 운 세계.’ 그녀는 자신이 울었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속으로 말했다. ‘그 계기는 한울이의 죽음.’

8

그녀는 아침부터 교회를 향해 뛰고 있었다. 어젯밤 다른 날들과 다르게 특별히 늦게 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했다. 항상 지나는 길과 그 옆의 나무들은 그대로 있었다. 그녀를 걱정해주거나 응원해 주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를 질책하거나 한심하게 보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이들이 처음에 가지고서는 변하지 않은 특성들이 지금 세상의 것과 같음에 기뻐했다. 그리고 유지되는 특성들의 유지, 그 자체에 안도했다. 물론 이 것들은 모두 여유가 생기고 난 조금 뒤의 미래에 생각한 것들이다.

교회에서는 단체의 장이자 성인이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파란 정장을 입고 단상 위에 올라와 말을 한다. 단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을 때는 거의 다 그 구도였다. 그의 연설은 현실과 꿈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믿을 만한 농산물 중간 판매 업자가 되어주었다는 이야기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기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함께했다. 단체 사람들은 그의 성스러움에 제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집에 과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제 저녁에 세운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기 전 과일을 사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탓이었다. 그리고 연설 중 떠생각한 자신에 놀랐다. 그날 밤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자신의 친구가 이상하다 생각했다.

연설이 끝나고 밖으로 나서자 한 길목 옆쪽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봤다. 아마 이들은 오늘 교회에 오지 않은 듯했다. 뭐, 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주제는 아니다.

저들을 빨리 빼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달려들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녀가 친구들과의 전화 중 한 번씩은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특별한 한율이가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다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대부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것들이 태초부터 달랐다면, 언젠가 다시 거대한 무언가로 변모할 것이라 믿었다. 그 거대한 무언가가 닥쳐올 때 자신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는 걱정스러웠다. 아무도 생소함에 휘둘리는 자신을 품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책, [1Q84]를 보았다. 3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에서 아직 가장 처음 것만 읽은 상태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해 어릴 적 그녀의 방 책장에 하루키의 모든 책을 보관하곤 했다. 그리고 그중 [1Q84]가 가장 재미있다고 거듭 추천했다.

그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있는 세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경찰의 총기 모델이 달라졌다는 것을 계기로 변화를 알아차리고 택시에서 들었던 한 음악이 그 원인임을 추론한다.

주인공이 옮겨 간 세상에서는 달이 두 개다. 책의 뒤쪽 덧표지에는 ‘당신의 하늘에는 몇 개의 달이 때 있습니까?’ 라 쓰여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달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달이 보이지 않았다. 몸을 옮겨 머리를 창문에 붙이자 달의 일부분이 창틀에 가려서 보였다. 달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판별할 수 없었다. 그래도 달이 두 개가 되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 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학원으로 출근했다. 버스에서 한 남자가 그녀가 평소 앉는 자리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장 셔츠를 입고 소매 부분을 팔꿈치 절반까지 걷어 놓았다. 몸통이 두툼하지 않아 다른 신체들까지 말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출근하는 평범한 한 직장인처럼 보이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임 하나하나를 조절하고 있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별로 의식하지 못했겠지, 그녀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한 정거장 빠르게 내린 후 걸어간다. 덕분에 일자리에 3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생각에도 그 남자를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저번 버스 속의 그 사람인가? 계속 버스를 통해 접근해 나가는 이유는? 아마 가장 일상적인 장소를 통해 주위 사람과 대상

이 느끼는 위화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겠지. 그녀는 문득 자신이 너무 성급했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 당시에는 밖이 너무 어두워 버스 안에서의 피아 식별도 정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울이와 함께 있었다.

학원에서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너무 정제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 생각했다.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공감하지 못했다. 그들의 말에서 의미를 찾고 언급된 원인의 정당성을 분석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뿐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 자신만의 원인을 만들려 노력해 보았다. 아마 목적을 잃어 그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배울 이유도 없는 어려운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불합리함을 느꼈을 수 있다. 그 이유라 할만한 시험도 진짜 능력이 아닌 얼마나 정규화 된 틀에 사고를 끼워 맞추었는지를 평가한다는 생각에 질려 버렸을 수 있다. 결국 수학을 평생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노력하고 즐겨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 또한 너무나도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잃어버릴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물건들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수학의 목적이 없는 걸 알아챌 것 같았다.

물론 이런 식의 고민을 하기도 전 걱정했던 것처럼 평생을 수학에 바치는 사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학에서의 목적을 잃지는 않았다. 수학 강사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강사가 그녀임에 만족하게 한다고 믿었다. 그녀가 여전히 수학을 평균보다 훨씬 더 즐겼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수학은 직업과 업무이기도 하면서 안락한 쉼터이기도 했다. 다음 수업에서 소개할 어려운 문제들의 풀이를 적어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면 온전히 수학과 논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무런 변화하는 외부 요소들도 그 견고한 집중력을 깨 수 없다고 느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미 등장해 익숙해져 있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럼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온 과거의 기억에 놀라고 이 놀람이라는 감정은 그들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몇 주, 몇 달이 지나 친구들에게 ‘이 문제 엄청 신기한 풀이 있는데’ 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환에는 수식을 직감으로 느끼는 능력과 숨겨진 의미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녀가 이미 타고났다고 할 수 있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할 때 그녀는 버스에서 아침의 그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루 동안 여러 옷을 입어야 하는 직업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옷 속이 같은 사람인 건 분명했다. 풍기는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원래 내리는 곳보다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렸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기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곳에서는 시작부터 당연한 것일 수 있었다. 저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여서 자신이 만든 옷의 프로토타입을 입고 일상적인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중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에서는 현재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 가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아직,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가 충분하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달라졌고 그 변화가 확인할 수도 없을 만큼 당연한 현상에 대한 것인지도 확실치 않았다. 그래도 조금은 더 한 정거장씩 다르게 내리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그녀의 수업에 하은이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마저도 어려한 종류의 변화로 받아들였다. 하은이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학원을 나오지 않는 것은 웬만큼 큰 일이 아니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다. 갑자기 학원에 가기 싫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큰일이 외부에 알릴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진행되기란 꽤 어렵다. 생각할 거리 없이 ‘일이 있어서’ 라 보내는 통보식 명분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반의 다른 학생들도 그녀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유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는 더 그랬다.

그녀가 가장 큰 불안을 느낀 것은 바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만약 지금의 세계에서는 하은이가 학원을 자주 빠졌다며 원래부터 그런 하은이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무언가 달라진 것이 생겼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평소 하은이의 행실에 대해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라며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학생, 그것도 가장 잘하는 한 명의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 유추할 수 없었다.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수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자신이 물통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껍고 깊은 종이컵 두 개를 포개 3시간 동안 물을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

으로 담아둘 수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 빈 공간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글을 썼다. 당장 쓰다 만 글은 없었다. 옆에 놓인 소설이 인쇄된 종이가 꽤 뺏뺏하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었다. 아직 하나를 완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하나를 쓰고 싶었다. 이야기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한다. 그 사람은 친한 사람 중 하나가 실종되는 일을 겪는다. 언제나와 같은 루틴을 지키는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이상함은 느끼긴 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친구는 사라져간다. 사람들과 단체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으면 한 명이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잊을 테니.

10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 많은 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해.”

“그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뭐 4급은 이미 거의 다 그 거 된 거 같고, 3급도 가끔 사람이 하던데. 봐봐, 여기가 그 정도로 무언가를 막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니라니까. 농장들이 다 엄청 큰 것들은 아니고, 사람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센터는 싹 다 널려있잖아.”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 우리 눈들이 아저씨 같은 거 운영할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럼 차라리 사람 쓰는 게 더 그렇겠다.”

“그게 아니라, 뭐, 돈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을 수 있겠네. 그런데 사람을 쓴다고 돈을 더 써야 되는 건 또 아니야. 봐봐, 아저씨로 일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명예직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끌어다가 센터에 앉히는 거지.”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 최근에 갑자기 아저씨들이 다 사람처럼 말하는 거. 뭐랄까 예전처럼 사람이 판단하는 느낌?”

“아저씬데 그런 게 어딨어. 몰라, 그냥 다 똑같이 하던데. 아무 테서나.”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하면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엄청 세밀한 것에도 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거 아니야. 원래 아저씨는 그런 거 없고.”

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달라진 거지? 방향 말이야. 플러슨지 마이너슨지.”

그녀는 그가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 치고 특이한 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대로면 항상 한 명에게 적당하게 유지되는 양의 파일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파일에 관한 걱정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파일을 먹는 속도가 줄어든 이후에 그랬다. 최근에 대화를 길게 할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지 눕고 나서는 빠르게 잠들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교회를 향해 뛰고 있었다.

11

다음날은 오후 수업만 있는 날이었기에 오전 동안 쉴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바쁜 기간에는 이런 오전도 쉬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날 오후에도 하은이가 오지 않았다. 학생들의 놀라움이 이번에는 오래 가지 못했다. 아마 둘째 날이 되니까 진짜로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고 믿는 듯했다. 오래 못 올 일은 조금 못 올 일보다 좀 더 신빙성을 얻었다.

시험을 보는 동안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다. 시험지를 보여주며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전 수업 시간 연습 문제로 풀었던 조건에서 숫자 몇 개가 달라진 것이 그 원인이라 말했다. 물론 오류는 문제가 아닌 학생이 고려한 경우들에 있었다. 그 시험지 풀이 공간 중앙에는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빼곡한 접선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중간에 샤프심이 부러졌는지 접선들이 더 굵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렛했다. 그러나 이를 의도했을 리는 없다.

결국 문제에는 오류가 없으니 다시 생각해 답을 내어 보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다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버스를 탄 후 한 정거장 빠르게 내려 이어서 걸어갔다. 오후 수업 치고는 빨리 끝난 편 인에도 버스에 그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에 관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육교 밑에서 앞서가는 버스의 소리가 증폭되는 것을 느꼈다. 육교는 아주 넓었기에 의식할 만한 그늘이 생겼다. 바로 전 사거리부터 한 트럭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스포츠카 몇 대의 엔진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트럭이 육교 밑 가드레일

에 긁히는 굉음을 듣고 나서 깨달았다. 그 순간 트럭의 앞부분에서 팻덩이가 뿐어져 나왔다. 붉은빛의 살점과 분홍빛의 장기 조각이 으깨진 채로 사방에 분사되었다. 펼쳐진 진액의 장벽은 트럭의 속도를 조금도 줄이지 못했다. 음료수를 바닥에 쏟아버리는 소리가 났다. 질척한, 토마토 주스 같은 것 말이다.

몸의 흔적은 현장에 골고루 펴졌다. 마치 사람의 가죽과 내부를 뒤바꿔 놓고 강하게 내리쳐 털어낸 자리 같았다. 그녀는 긁히는 굉음 직후 이어진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고 느꼈다. 그저 느낌만은 아닌 것이 그녀의 뒤통수, 등과 다리 뒷부분은 혈흔으로 벌겋게 젖어 비린 향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만을 잠시 멈춰버렸다. 그리고 잠시 뒤 주변과 자신의 모습을 강제로 보게 되었다. 트럭 운전사도 급발진에서의 충격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앞 유리를 덮은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를 목격했다. 조그마한 덩어리들이 느리게 미끄러지며 자신의 일부를 유리창에 묻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육교 아래는 피와 잇따른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녀와 트럭 운전사, 주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 같은 차도로 달리던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모두 저마다의 강도로 놀라게 했다. 그녀는 본능적인 역겨움에 약하게 토를 하고 최대한 빠르게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리고는 따뜻해졌다 다시 식어버린 자신의 왼쪽 뺨에 손을 얹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 같았다. 한 존재가 상실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결과가 어디까지 극단적일 수 있는지, 그녀는 생각했다.

잔해의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육교에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차가 없었다면 죽지도 않았을 높이다. 그러나 시간의 우연으로 그 사람의 몸은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산산이 분해되어 터져버렸다. 어떤 우연이 있었든 자신이 죽을 걸 기대하고 뛰어내린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곳에는 찢긴 옷 조각에 붙은 명찰이 있었다. 초록색 직사각형에 ‘이하은’이라고 노란 자수가 박혀 있었다. ‘이’, 그리고 ‘하’과 ‘은’의 아랫부분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물기가 빠져나와 다시 황금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여학생은 수학을 잘했다. 13명이 되는 반에서 시험 점수로 항상 1, 2등을 유지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다. 트럭에 치인 사람이 분해되는 것은 인정해도 그 사람인 하은이가 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은이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존재하는 자료에서 그녀는 여전히 수학을 잘하는 여학생이었다. 투신이 자연스러운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분명 이는 확실히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어찌 됐건 이상한 일에 달라진 세계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세계가 진짜로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녀는 상상해 낼 수 없었다.

그래도 생긴 변화는 생긴 변화이다. 이 초자연적인 과정에서 그녀의 상상은 어떠한 역할도 차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가 한 번 잃었던 한울이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반은 혼잣말로 말했다.

“나? 나는 맞아. 그냥 맞는 일이겠거니 하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많이 틀렸지. 그런데 앞으로는 다 맞아.”

그렇게 말하고는 입을 조금 벌린 후 코로 웃는 소리를 옆에 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12

덕분에 간단한 농사가 잘 끝나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농사에 유능한 사람들이 널린 단체라니,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었다. 이제는 갑자 농사에서 벼농사로 조금씩 이동해도 될 때 같았다.

넓은 논을 바라보고 있자면 황금빛을 쏟아낸 노을이 남기고 간 바닥을 밟아래에 둔 느낌이었다. 그 벼들을 흔들어대는 바람은 태양의 섬광을 향연하는 광선의 출렁임으로 오해한 눈에서의 작용을 세상 밖으로 꺼내 놓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긴장할 때 이따금씩 찾아오던 손목 안쪽 부분의 은근한 찌릿함과 동시에 안정될 때 찾아오던 특정한 공기의 출입을 느꼈다. 그리고 그 찌릿함은 긴장이 아니라 전율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믿었다.

좋은 자연환경 덕분인지, 인적 환경 덕분인지 이곳의 과일은 품질이 아주 좋았다. 좋은 과일을 함께 재배하여 판매하니 아저씨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싸고 홀륭하고 안전한 과일을 누가 사지 않고 배기겠는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과일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다리부터

팔까지 마른 체형이었다. 근육이 많다기보단 이를 가릴 살점이 부족해 팔다리의 자잘한 줄곡이 두드러졌다.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더니 빠르게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가 놀란 듯 그를 쳐다보면서 팔을 빼내자 조금 짜증이 섞인 채 더 강하게 팔을 잡아끌었다. 이번엔 그녀가 힘을 주어 저항해도 팔이 빠지지 않자 오히려 남자가 손을 강하게 내리며 팔을 쳐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조곤조곤 욕설을 내뱉고는 팔을 올려 위협했다. “야, 으휴. 쯧, 에이씨” 라 말하며 올리지 않은 팔을 이용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짧은 외마디 비명 같은 신음을 작게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하는 그 소리는 그녀의 손바닥이 흙밭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보다 작았다. 종이 봉투 안에서 사과 두 개가 굴러 나왔다.

길을 가던 다른 남자가 천천히 뛰어오더니 마른 남자를 때어놓았다. 이럴 땐 아저씨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다가온 남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양쪽에 두고 2급 센터를 향해 이동했다. 마른 남자는 상체를 조금씩 흔들며 나아갔고 그녀는 바닥을 보고 있었다. 아저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다 문을 열고는 했다. 그러나 건물 내부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마른 남자를 더 이상 단체에 남겨둘 수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농사를 잘했다. 어쩌면 도움을 주었던 할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인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 긴 기간 동안은 별 변화가 없었다. 그 남자와 더 친해졌을 뿐이다. 그들이 식사를 하던 중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저씨 관련 일을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일을 소개한 그 사람은 자신을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의 부하 직원이라 소개했다.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부하 직원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단체를 위해 다양한 일을 빌로 뛰며 실행해 나간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것이 사람을 모으는 등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 말했다. 지금도 그 일의 일환으로 그를 아저씨에 관한 일을 하는 자리에 배치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했다.

“아유, 저는 그런 일 제안이 들어온 거면 감사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건가요? 저한테 이런 제의가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직원은 이 자리가 간단한 알림이나 관심도 확인을 위해 작게 마련한 것이라 했다. 정확한 내용은 가능한 시간에 센터로 찾아오면 이야기할 것이라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명함 속의 장소는 1급 B 센터 6층 2호실이다. 현관문

이 닫히며 간단한 알림과 관심도 확인이 끝났다. 그는 조금의 의아함과 함께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 이후 그는 그녀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주 바쁜 일이 무더기로 생겨 강제로 이에만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 된 듯했다. 그러나 그의 관리 일은 그 정도로 바쁘지 않았다. 일 자체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은 그 외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히 여유 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죽음 말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어딘가로 납치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했다. 그랬다면 납치범들은 그의 장기를 꺼내 팔고 남은 껍데기를 산 같은 곳에 묻어 두었을 것이다. 이때도 명백히 죽은 상태인 것이다.

이제는 그의 흔적이 천천히 세계에서 상실되어 갈 차례이다. 이 절차에 그녀는 아까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후 그녀는 교회에 매주 갔다.

그녀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단상의 중앙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옅은 황토색 벽을 뒤에 두니 푸른색이 반사하는 빛을 눈은 더 강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몸통과 위로 흔들리는 팔은 시야에 잔상을 묻혔다. 잔상인지 미지의 기운인지 모를 옅은 파랑 광선은 단상 가운데에 선 그의 몸 주위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저런 색의 옷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가진 원인 모를 힘은 그녀를 믿음의 영역에서부터 끌어들이고 있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끌어낸 경사스러운 성과부터 함께 축하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단체의 농산물 판매 수익금이 작년도 동일 분기 대비 20%나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작은 함성으로 서로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성장에 기여하신 분들,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힘 써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태양과 달과 지구에게 돌리겠습니다. 태양, 달, 지구, 이들이 하나라도 더 있었거나 덜 있었다면... 저런, 태양 빼고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웃음을 내뱉었다.

“하하, 괜찮습니다. 그 숫자들은 바뀔 일이 없어요. 진리잖아요. 태양과 달과 지구는 하나다. 이건 진리죠. 영원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좋습니

다... 진리, 좋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진리들도 있죠. 아마 저희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진리들을 끌어안고 있을 겁니다. 진리라는 건 바뀌지 않는 세상의 규칙, 우리들의 영원한 꿈이에요. 역시 세상에 진리만큼 안정적인 대상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우리 단체는 역사상 어디에서도 유례없는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과 비전으로 모두 함께 이루어 낸 겁니다! 물론 실무적인 업무들은 우리 직원들의 뛰어난 체워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저희를 키워 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의 수익 증가는 이 귀중한 안전을 더 견고히 만들 것입니다. 더 많은 자금은 다른 무엇도 아닌 모두의 안정을 위한 여유로운 운영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분기도 20%만큼은 아니지만 판매 수익금이 꽤 증가했다. 생산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판매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과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내일 교회를 다녀오고 좀 이른 저녁에 사채워 넣어야 할 것 같다. 그때 그녀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그리고 조금은 멋쩍게 인사했다.

“어 뭐야. 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는 그녀의 말을 장난스러운 대답으로 넘긴 후 다시 여유로움을 찾은 듯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문을 끝까지 열고 발을 들이자 다시 사라져 버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너 진짜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다니까. 여기서 사라진 거면 죽은 거 말고 뭐가 있어.”

“아니야, 진짜 뭐 그런 일은 없었어. 걱정해 준 건 고마운데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일이 바빠서. 그때 말한 거 있잖아, 아저씨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건 뭐야. 일이 좀 여유가 생겼어? 그럼 뭐 연락이라도 좀 하지.”

“아니 그냥 때려치웠는데. 이상해서.”

“어? 때려치웠다고? 아저씨 직원 일을? 아니 잠깐만 일단 일로 와봐. 앉

아서 얘기해. 그래서 뭐...뭐라고? 뭐 거기서 뭐 무슨 일 있었는데.”

“그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 그냥 뭐 3급 관리, 2급 관리. 그냥, 그냥 직원 같은 일들 했다니까.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4급을 맨 마지막에 보여줘. 아저씨 1급 센터 작동도 막 볼 수 있는 그건데 4급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더니까. 이게 숨긴다는 말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그냥 딱 이상하잖아. 1급이 2급보다 중요하고 2급이 3급보다 중요한 건 맞는데 4급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음... 그건 뭐 그렇긴 하네.”

“그니까... 개네가 알려준 게 4급은 사람이 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아저씨 4급 센터에다가 말하면 사람이 답을 준다고.”

“어? 그럼 너도 그 일 하다 온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관리만. 3급이나 2급 가끔 가서 보는 거만 하는데. 4급은 작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 일하더라고. 4급 센터들은 지금 거의 다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 많은 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해.”

13

명찰을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찌익 하면서 거품이 미세하게 이는 소리만 났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마저도 피가 마르고 색을 굳혀버리면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하은이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다. 많은 종류의 질문이 기본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왜’ 였다. 그리고 제각각의 길이를 가지는 각각의 질의응답은 항상 그녀의

‘아니야, 진짜 너는 죽었잖아.’

라는 말로 끝맺었다. 긴긴 내면의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기는 꽤 어려웠다. 아마 살아있는 하은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녀는 자신의 질문에 명쾌히 답해주지 못했다. 그러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가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지?’로 바뀌자 답변은 조금씩 진전해 나갔다. 본인들도 대답 못 할 남에 대한 깊은 질문을 자신에게 하니 좋은 대답을 얻지 못한 것이었다. 바뀐 질문의 맹점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세계라는 만능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

다.

그녀는 식장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버스에서 한 번 더 그 뒤 틀린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버린다면 아예 이 세계에 진저리가 나버릴 것 같았다. 버스를 타지 않으면서 생긴 40분의 산책 시간 동안 마음 정리나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여느 때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을 알 수도 없이 바꿔버릴 거라는 그 변화가 자신에게만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른 세계가 품었던 태초의 균열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무언가로 변모해 다가오고 있었다. 크나큰 어색함은 세상을 보는 그녀가 기본적으로 이를 불안하게 어긋난 회색 배경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발산하고 있는 이 변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의 주위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고? 터져서?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적어도 세상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그러했다. 그 변화는 오직 그녀만을 대상으로 두고 일어나는 움직임일 것이다. 아무도 변화와 이를 맞이하는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움직임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행하는 일이라면 목적을 알아야 대비도 예방도 적절히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목적이 없는 현상은 그냥 마주해야 한다. 그게 인생살이의 대부분이다.

그러다 어떤 변화들을 사람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변화를 겪는다. 그게 전부다. 모두에게 그렇다.

집 현관문을 열자 무언가가 불타는 냄새가 났다. 불투명한 연기가 천장에 서부터 자욱히 쌓여있었다. 연기가 시아를 가리자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이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해 주방 전체로 퍼져나가 있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길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시체가 있었다. 어머니의 목에 깊숙이 박힌 칼은 그녀의 숨통을 끊었다. 흥건한 피는 주방 쪽으로 흘러 들어가 얇은 부글거림과 함께 끊었다. 이제는 검붉은 찌꺼기가 되어 열기에 거품을 만들고 동시에 터트리며 기괴한 운동을 지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박힌 칼 손잡이를 움켜쥐려다 결국 그러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혹은 움켜쥔 상태에서 차마 손을 내리지 못하고 죽은 것일 수 있다. 불길은 그녀의 몸을 계속 데우다가 이제는 완전히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의 목에 이리도 정확히 칼을 꽂아 넣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이게 너가 쓴 소설이라면, 생각으로만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지금 당장 달
을 두 개로 만들어줘. 내가 확신할 수 있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 그녀는 자신의 하늘에 몇 개의 달이 떠 있는지 확답할
수 없었다.

II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집을 찾아오지 않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었다. 그녀는 집에 갈 때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었다. 그녀가 발견한 어머니의 목덜미에는 뜨거운 열기에도 다 마르지 않은 퓁자국이 광택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그리고 그 개념이 가진 속성에 대해 강한 불쾌함을 느꼈다. 그런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당장은 납득할 수 없었다. 지금 바로 피할 수 없는 변화는 없다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성공하리라는 확신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목적을 가질 대상을 생각해냈다. 하은이의 죽음, 화제와 어머니의 죽음. 어쩌면 한울이의 죽음까지도 모두 자살로 철저히 위장되었다. 그렇다면 그 조작에 가담하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상이 있을 것이다.

하은이가 죽은 날을 떠올렸다. 그날 버스 속의 남자가 자신과 같이 내려 그에 대해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한 정거장 뒤, 그다음은 하나 앞. 마지막 하나 앞에서 진짜 위치를 파악하고 내린 듯했다. 만난 이후 초반 두 번 동안은 그녀가 의도해 외진 길로만 걸어갔다. 바로 따라오면 의심받기 쉬워서 기다렸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집에서 그녀를 만나려고 일을 꾸민 것이 아니었다. 출퇴근길에 정거장을 계속 엿갈려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행동하려는 마음을 접었을 수 있다. 고 그녀는 생각했다. 무엇이 됐든 그들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참히 죽여갔다. 버스 속 그 남자부터 시작해볼까.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거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용건이 끝난 것인지 집으로 행하는 버스에는 이상한 사람이 없었다. 집에 들어서 검게 탄 주방으로 향했다. 그 속에서도 전체가 금속으로 된 주방 칼은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조금만 그을린 채 남아있었다. 그대로 꺼내 들어 곁

을 한 번 문지른 후 가방에 넣었다. 지문이 칼봄 위를 훑으며 매끄러운 소리를 냈다.

다른 장소를 구하기 전까지 묵기로 한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 버스에는 역시나 그 남자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올바른 정류장에서 내리자 남자도 곧바로 따라 내렸다.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길이 아닌 외진 골목으로 향했을 때도 여전히 그녀의 발자국을 따르고 있었다. 그 골목은 꽤 길게 다른 길가로 뻗어나가지 않고 한 줄기를 유지하는 골목이었다. 그녀가 골목을 지나는 중에 갑자기 멈춰서자 남자는 당황한 듯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속도를 낮추었다. 꽤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뒤를 돌아 그의 왼쪽 허벅지를 칼로 찔렀다. 그리고 비슷한 자리를 칼의 방향을 틀어 한 번 더 찔렀다. 바로 옆에 놓인 대형 분리수거함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지려 하는 그를 붙잡아 그곳에 넣었다. 남자는 다리를 붙잡고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흐르지 않게 왼쪽 다리를 분리수거함 벽면에 걸쳐 놓았다.

“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계속해서 따라다녔잖아요. 저 어디 가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하은이랑 엄마 죽인 거 맞아요? 왜요?”

“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다고. 나한테만 왜 이러는 거야. 씨발.”

“죽인 거 맞아요?”

“알았어. 알았어. 어 맞아. 다 말해줄게. 그러니까 살려줘.”

그녀는 그럴 것이라 답했다. 그는 조금은 고통이 가신 것처럼 말했다.

“그니깐 나는 어떤 단체에서 일하고 있거든. 최한을 알지. 걔도 나처럼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면 단체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그걸 했거든. 그 우리 단체가 그 힘든 사람들 모아서 도와주는 일을 해. 어쨌든 그래. 그런데 일을 그만둔 거야. 우리가 외부랑 막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없애야 해.”

“뭐라고요? 외부랑 무슨 일을 하는데요?”

“우린 영원한 안정을 위하는 곳이야. 그래서 바깥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것들을 많이 해. 그런데 누군가한테 막 알려지면 이, 이 안정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바깥에 남긴 혼적들을 짹 다지우는 거야. 기록이나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짹 다.”

“근데 하은이는 왜요. 아예 다른 사람인데.”

“어, 너도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안 죽어. 깔끔하게 자살로 처리하기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서 자살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자살로 위장하든 실제로 자살하든 그게 그거야. 품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결국 해결 못 할 일은 아니잖아.”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다음 질문을 생각하는 것인지, 남자의 답을 다시 한번 곱씹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럼 다음은 서현이에요?”

“맞아, 맞아, 이서현.

봐봐, 나는 이런 일하기 싫어. 근데 그렇다고 안 하면 나도 죽는다고. 진짜로 내가 아는 건 다 말했어. 살려줘.”

“그 단체라는 건 어디 있는데요. 이런 거 다 말해도 괜찮아요?”

“그럼, 씨,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허벅지가 찔렸는데. 내가 뭔 특수 부대도 아니고... 나도 그냥 사람이라고. 단체는 ‘푸른’이라고 밖에서는 그냥 농업단체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진짜라고. 전 직원들 주변인까지 썩다 죽이는데 그런 걸 알려주겠어?”

“아 맞다. 이름이 뭐에요?”

“나, 나는 양정산. 양정산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살려주는 거 맞지?”

그녀는 분리수거함에 피를 뚝뚝 떨어뜨리는 칼로 그의 목을 찔렀다. 피가 더 빠르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칼을 뺏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피를 뿜어내다 금새 죽었다. 그녀는 칼을 다시 목에 난 구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힘 빠진 두 손으로 칼 손잡이를 감쌌다. 비닐장갑을 뒤집어 벗고 가방에 뭉쳐 넣었다. 라이터로 비닐장갑에 불을 붙여서 그의 시체를 집어삼키게 하고 싶었다. 동시에 가방에서 물티슈 세 장을 꺼내 팔에 묻은 자국을 최대한 지우고 바로 앞에 버렸다. 분리수거함 뚜껑을 닫은 뒤 이서현의 집으로 향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공명했다.

새로 온 ‘푸른’은 그녀에게 아주 만족스러웠다. 초반에만 조금 힘들었지,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그녀가 받은 농장 바로 옆에서 사는 노부인의 안내가 큰 도움이 되었다. 노부인은 언제나 새로

온 사람들을 자식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노부인의 소개에서 그녀는 아저씨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단 하나의 원천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여기가 바로 아저씨가 있는 센터예요. 센터는 총 1급부터 4급까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더 낮은 숫자의 센터로 찾아가면 돼요. 여기는 3급이네요. 3급에 해당하는 곳은 아저씨에게 음... 일상적이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은 윤리적인 갈등 같은 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다 3급 이하에서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실 여기서 살면서 1급에 찾아가야 할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다 또 전문 안내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두 명이 마이크 앞에 서고 한 명씩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에요. 뭐 아무 부담 가지지 말고 일어난 일과 자신의 상태만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저씨가 상대의 말을 듣고서 판단해 줄 거니까요. 얼마나 정확하던지 제가 설 곳이 없어질 것 같았던니까요. ‘노인의 지혜’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게 사라진 거 같다고나 할까. 그래도 뭐 마을에 노인이 딱 한 명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밖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농사는 다른 생활 요소들과 달리 좀처럼 적응되지 않았다. 노부인이 권한 갑자 농사라 해도 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은 언제 줘야 하는지, 그것 말고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다. 갑자기 빠르게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부 시들어 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희야 밖에서도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라 완전히 공감할 순 없어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난감함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농사에 대해서 저도 별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그저 계속 실패하면서 기쁜 감으로 위기를 하나하나 넘겨갈 뿐, 남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제 남편에게 물어보면 꽤 도움이 될만한 수학을 얻을 수 있을 거에요.

저도 이 제안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군요. 남편은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에, 기본적으로 남을 대하는 데에 친절함은 타고나지 않았어요. 제 아들 농사일 가르치는 모습을 보셨다면, 제 아들이라 그정도였지... 성격을 알 수 있었을 거에요. 아무리 그래도 농사일 관한 지식 하나는 믿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면 이 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그 사람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적개심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착한 마음으로 온 힘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덕분에 간단한 농사가 잘 끝나 감사할 따름이었다.

15

그리고

16

“어, 왔구나. 너 진짜 괜찮아? 진짜... 이리 와”

서현은 현관 앞에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서현의 품에 안겨 그녀의 어깨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이 뭐 그냥... 고마워.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도 될까?”

“어, 그래 그래. 쉬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푸른’은 말 그대로 사람을 지워나가는 단체이다. 그런 활동에 있어 정확한 타이밍과 뒤처리는 전문가 수준으로 잘 하나 보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전부 다 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은이를 떨어트리는 시간과 가드레일로 방향을 바꾸는 트럭의 속도를 맞춘 것이 그러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유실시킨다. 버스 속 남자가 말하는 투를 보면 꽤 규모가 있는 농업단체일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겐 푸른이 선사하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변화 그 자체일 것이다. 그녀는 걸려 온 승부를 거절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상대를 고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직감을 타고 난 여자였다.

푸른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내부인을 경계하지 못하는 듯했다. 남자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만으로 당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대외적인 경계에만 신경을 집중한 걸 수도 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푸른을 검색하고 장의 모습과 위치를 찾았다. 장은 노인에 가까운 남자로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바람 쐬고 온다고 말한 뒤 서현의 집을 나섰다. 혹시 몰라 두 개의 칼을 샀다. 현장에 놓고 오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일체형 칼은 너무 비쌌다. 밤하늘에는 달이 아주 밝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려보낸 적 없는 빛의 푸근함을 조금씩 새어 나오게 하고 있었다. 고개를 빠르게 올리니 갑자기 달이 두 개로 보였다. 그러나 눈을 깜빡이니 두 달의 형상이 천천히 하나로 겹쳐졌다. 둘을 하나로 합치니 더욱이 밝아진 것 같았다.

장이 일하는 공간에는 푸른이라는 글씨가 적힌 문과 함께 그 뒤로 3개의 방이 앞쪽과 좌우 양옆에 배치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가장 안쪽에 있는 큰 방이 찾던 사람의 것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양쪽의 두 방 중 하나에만 사람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푸른 맞나요? 저는 그... 최종민씨를 만나 볼 일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종민님은 나가셔서 바로 왼쪽에 보이는 방에 계시는데요. 먼저 어떤 일로 찾아오시게 되었는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냥 양정산씨에 관한 일이라고만 말씀 드려도 될 거 같아요.”

“예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그녀를 사무실 벽면에 붙어있는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잠시 뒤 두 사람이 방 앞까지 찾아왔을 때 일어섰다.

“이 여성분이 양정산씨 일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칼을 꺼내 직원의 오른쪽 목을 찔렀다. 쓰러지는 직원을 밀치자 소파가 그의 피로 덮였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종민의 허벅지를 찌르고 옆으로 힘을 주며 빼내 상처를 크게 만들었다. 그를 직원의 사무실 안으로 끌고 오고 문을 닫아 밖으로 피가 새어 나가지 않게 했다. 우렁찬 비명은 조금씩 새어 나갔다.

“넌 도대체 누구야?”

“최한울의 지인인데요. 최종민, 푸른의 관리자가 맞나요? 아니라면 누군지 말했을 때 살려줄게요.”

“나는 그냥 그렇게, 이게 외부적으로 나오는 그 장인거고. 실제로는 푸른 치면 나오는 그 파란 정장 입은 남자 있잖아.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진짜야.”

“그건 사실이 맞는거죠.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은 어, 푸른 농장에 1급 A 센터라는 게 있어. 거기야. 푸른 농장에만 들어가면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게, 그게 내가 아는 최대한 이야.”

자,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어. 근데 들어봐, 들어봐. 우리 푸른은 절대적인 선을 지향해. 모두와 영원한 안정을 나누는 게 목표야. 모두랑. 너도 푸른의 일원이 될 수 있어. 너도, 너도 아직 늦지 않았어. 괜찮아..."

종민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그의 목에 박아 넣었다. 그리고 양정산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다만 물티슈 4장을 비닐장갑과 함께 가방에 넣었다는 점이 달랐다.

골목에 한 남자가 누운 듯 앉아있었다. 심하게 말라 피부와 뼈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게 했다. 피부는 뾰족하게 돌출된 작은 손뼈와 팔꿈치뼈에 걸린 채로 현수막처럼 팔에 널렸다. 직선으로 뻗은 현수막의 윗부분 밧줄은 기묘한 탄력을 유지했다..... 한울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본 사람과 상태가 비슷했다. 그러나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내부에서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 끊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정체 모를 무언가에 끊임없이 역겨움을 느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푸른 농장 1급 A 센터에 도착했다. 가방에는 언제나처럼 어제 산 칼, 비닐장갑,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었다.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는 9층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큰 방 안엔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밖에 없었다.

그녀는 비닐장갑으로 싸인 손에서 순간적으로 물기를 느꼈다. 그녀는 멈춰버린 자신의 사고의 수레가 놓인 바닥을 보았다. 멀리서 보니 흄집이 있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칼로 난도질한 모양새였다. 너덜너덜한 뎅어리가 된 그것을 그녀는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다 이 상태에 도달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비닐장갑은 이제 습기로 내부가 뿐옇게 덮였다. 파란 정장을 입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칼이 떨어지는 소리에 남자는 달려와 그녀를 한 팔로 받히고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그 목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공명했다.